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 의정 활동 보도

2013년 07월 22일  
(월요일)

북부신문 5면

현장 의정의 달인 강북구의회 이성희 부의장

## 불합리한 장면 목격하면 메모와 사진촬영으로 꼼꼼히 기록

우이동 학생들 도봉구 백운초서 교육 받던 불합리 해결 가장 기억에 남아

강북구의회 이성희 부의장은 현장 의정의 달인이다. 그만큼 지역 곳곳을 누비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후반기 부의장을 맡으면서 그 활동 반경은 더욱더 넓어졌다. 전반기에는 지역구 의원으로 본인의 지역구만 누볐다면, 이제는 부의장으로 강북구 전체가 그의 지역구가 된 셈이다.

"지역을 누비다 불합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꼭 메모와 함께 사진을 찍게 된다"는 이 부의장은 "메모와 사진, 그리고 취합하는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해결점을 모색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다보니 이 부의장이 문제를 제기하는 현안들은 그 범위가 다양하다. LH공사와 우이신설 경전철 등 굵직한 사업에서부터 지역 문화사업자들의 애로 사항까지 그의 관심사는 실로 방대하다. 그만큼 강북에 대한 애정이 크기도 한 이 부의장은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이 부의장은 우이동의 강북구 학생들이 도봉구의 백운초로 진학하면서 받는 차별을 시원하게 해결한 것을 가장 먼저 꼽았다. 이 부의장에 따르면 강북구에 거주하는 800여명의 백운초 재학생들은 사는 구가 달라 불이익을 받아 왔다는 것. 도봉구 쌍문동에 소재한 백운초등학교는 그동안 강북구 우이동, 수유2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64%를 차지하고 있지만 강북구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도봉구청 및 학교 측의 각종 시상 또는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에 배제돼 왔다.

이 부의장은 "강북구의 학생들이 강북구와 도봉구간의 잘못된 행정구역 편성으로 빚어진 지역차별로 인해 많은 교육차별을 받았다"면서 "백운초교 학생들의 교육차별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여 도봉구청과 교육청, 학교 측과 합의를 주도하는 관계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

가족제도 정착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오는 10월 2일 노인의 날에 116세로 강북구 최고령 어르신 덕을 방문 직접 효도지원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 부의장은 이와 관련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전통 미덕인 효 사상을 실천하는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효 정신을 되새기고 장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부의장은 "강북구청 사거리 횡단보도의 장애인블록이 매우 좁아 장애인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며 이의 해결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성희 부의장이 레이더에 걸린 이상 횡단보도 장애인블록이 정상화 될 것은 그리 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취임1주년 관련 이성희 부의장의 일문일답을 간추린 내용.

### Q. 6대 의회 3주년 1년간 부의장으로서 의정활동과 소감은

A. 제6대 후반기 부의장으로서 선출돼 막중한 책임감과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기도 벌써 1년이 지났다.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으려면 항상 주민과 함께하고 또 주민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현장에 달려가 주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충실한 의원이 되겠다는 마음가짐과 사명감을 가지려고 노력해 왔다. 또 의회가 의원세미나, 비교시찰, 연구모임 구성활성화 등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힘 있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냈으며 강북구의 의회 상을 정립했다고 자부한다.

특히, 제6대 의회에서는 강북구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구정 질문에서 일문일답방식을 채택하는 등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어 근현대사 박물관 조성, 산악박물관, 우이동 먹거리마을 등을 연결해 역사·문화·관광의 강북구로 재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케이볼카 추진에 매진해 왔으며, 또 생활체육 활성화와 동호회 회원 확보에 관심을 갖고 지원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머니 돈을 투자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 Q.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계획이나 각오에 대하여

A. 남은 1년의 재임기간에도 주민들의 곁에서 우리사회의 다양한 이견과 갈등을 녹여내는 소통의정 그리고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사회 곳곳에 희망을 만들어 내는 희망의회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현재 강북구가 중점추진하고 있는 복지과 교육, 개발 등 세 분야 사업인 강북구 꿈나무 장학재단 운영, U-도서관 구축사업, 북한산 역사문화 관광벨트사업, 지하철도 주변 역사관광개발, 우이-신설간 경전철 사업, 4.19 국민문화제 성공회 개최, 향토강북운동 전개 등의 구정사업을 상호협력하여 한층 더 발전된 강북구가 되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

### Q. 강북구민들에게 인 말씀하신다면

A. 경제가 어려운데 구민 여러분은 무거운 세금부담을 안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소중한 구민의 열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소임을 다할 것이며,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고 성장과 통합의 새 시대 새로운 강북을 열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구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

또 제6대 후반기 부의장으로서 여야를 떠나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의회, 산중간에 화



북부신문 5면

다'며 뿌듯해 했다.

이 부의장은 또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제정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고 소개했다. 이 부의장은 핵가족화로 효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효행가정에게 효도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함께 구민들의 알권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민주적인 의회 상을 수립했다는 평가를 받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 Q. 개인적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A. 우이동 북한산케이볼카 설치와 관련하

상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의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강북구의회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강북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숙된 의회 상을 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